

2012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작 작품집

2012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작 작품집

2012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작 작품집

발행일 2013년 3월

발행인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팀
전화 044-201-3783
팩스 044-201-5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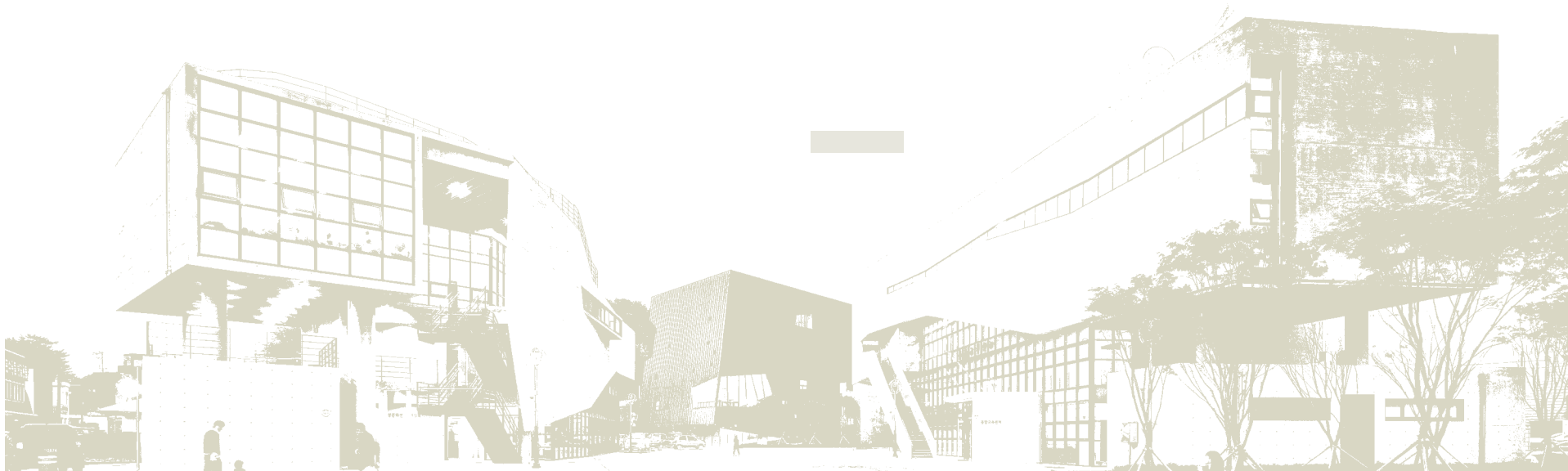
사진 윤준환(봄의마을), 이재성(쪽방촌) 및 지역단체

제작 김진디자인
전화 02-323-5377

2012 Korea Public Building Award

Contents

시행취지	07
2012년 공공건축상 공모	08
대통령상	
서천 봄의 마을	11
국무총리상	
윤동주 문학관	21
국토해양부장관상	
보성군청 사옥	29
영등포 쪽방촌 임시거주시설	37
영주 주민생활문화 복지지원센터	45
한국문화공간 건축학회장상	
계룡면사무소	53
영흥에너지파크	61
진주휴게소(부산방향)	69
2012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응모작	77



2012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

2012 KOREA PUBLIC BUILDING AWARD

시행취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국토해양부가 국토 및 도시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의 혁신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보급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경관법, 건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 및 제도적 준비가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질의 시대에 걸 맞는 건축문화의 선진화 및 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건축문화 발전 및 건설기술 수준향상을 위해 발주기관의 공공건축물 프로세스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수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품격 있는 건축·도시환경의 조성과 건축문화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의해 조성되는 공공건축물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을 지지하고 도시 및 가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지역 공간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은 지역주민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긍심 및 애착을 고양시켜주는 문화적 자산이 되어 지역 및 도시 브랜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공공건축물에 기울인 관심 및 노력은 그 중요성에 비해 크게 부족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의 공공건축물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상의 사회적 및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발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국가차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공공건축물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공건축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공기관이 인식하여 선도적으로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발주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 및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역할과 공공건축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보급에 공공기관의 역할 증진과 선도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 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한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구 좋은 건설 발주자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본 시상제도는 공공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정착해가고 있으며, 공공건축분야 에서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제도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작품집'은 공공기관의 빛나는 역할과 노력을 전국 공공기관 및 국민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품격 있는 국토 및 도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

공모요강 | 심사 | 수상작

공모요강

행사일정

작품 공모 : 2012. 11. 19 ~ 12. 7
1차 심사(서류심사) : 2012. 12. 11
2차 심사(현장심사) : 2012. 12. 15 ~ 12. 16
3차 심사(최종심사) : 2012. 12. 19
시상식 : 2013. 1. 8

공모대상

국토·도시공간의 품격 향상을 위한 공공발주자의 혁신적이며 혁신적인 노력 및 성과 공공기관이 시행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 또는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모일로부터 5년내 준공 완료된 사업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체 및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하며, 공간환경은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 공공공간 등을 말함)
활용도가 낮은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발주자의 혁신적인 노력 및 성과(공모일로부터 5년 이내)
※종전에 다른 상을 수상하였더라도 관계없이 모두 응모 가능하되, 과거 '좋은 건설 발주자상' 및 '공공건축상' 수상작은 제외

공모방법

자천에 의한 직접응모와 추천을 통한 간접응모 병행
직접응모_ 공공사업을 발주한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 직접 응모하는 경우 공모기간내에 응모서류를 작성하여 홈페이지(www.publicbuilding.kr)에 등록
추천응모_건축사협회·건설협회·감리협회 등의 회원, 시민단체, 시민들이 추천서를 홈페이지(www.publicbuilding.kr)에 등록

시상규모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국토해양부장관상 3점
한국문화공간건축협회장상 3점

심 사

심사방법

건축·조경 등 전문가 4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를 통해 선정
서류심사- 응모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시상규모의 2배수 이내에서 후보작 선정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작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설명자료 제출 요청)
현장심사- 서류심사를 거친 후보작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의 현장심사를 거쳐 수상작 선정

심사기준

발주자의 혁신적 노력과 이를 통한 사업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심사

박길룡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강성인 (주)공간 종합건축사 사무소 사장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사) 한국문화공간학회 부회장
김선미 한국토지주택공사 처장, 부처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설계총괄처 부장, 계약심사단, 용인사업단
이명식 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미국 P&W, 프랑스 SNCF 근무

수 상 작

대통령상

서천 불의마을(수상자:서천군 정재영)

국무총리상

윤동주 문학관(수상자:종로구 윤명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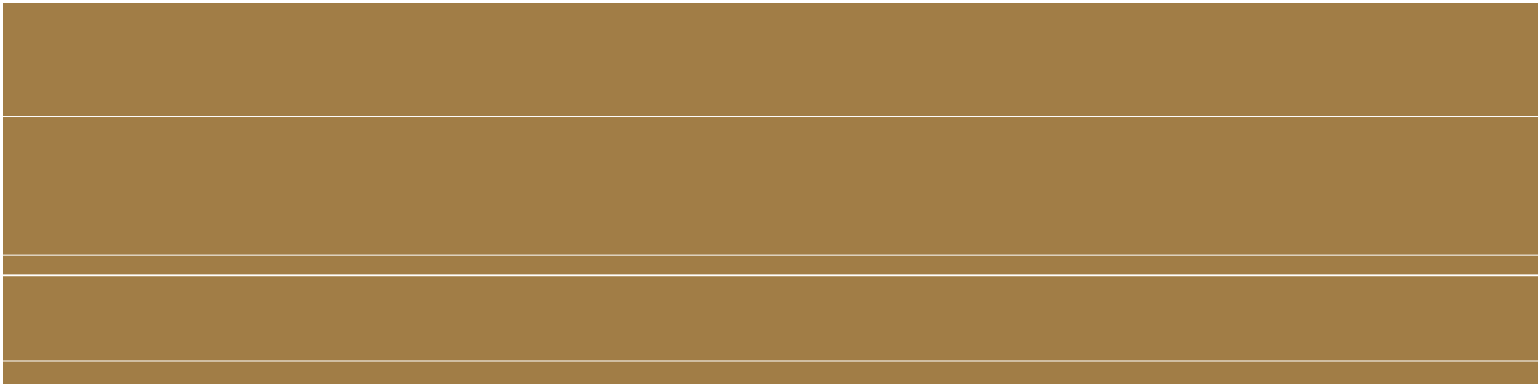
국토해양부장관상

보성군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수상자:보성군 김대주, 나기원)
영등포 쪽방촌 임시거주시설(수상자:서울특별시 이영철, 채민석)
주민생활문화 복지지원센터(수상자:영주시 정태호, 안창주)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장상

계룡면사무소(수상자:공주시 조영구, 성낙묵)
영흥에너지파크(수상자:한국남동발전 이영기, 김영봉)
진주(부산방향)휴게소(수상자:한국도로공사 이일원, 조규성)

2012 KOREA
PUBLIC BUILDING AWARD



대통령상

/

서천 봄의마을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1종근린시설
충청남도 서천군

2012 KOREA
PUBLIC BUILDING
AWARD

2012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통령상

서천 봄의마을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1종근린시설

충청남도 서천군

사업배경

서천읍은 서천군의 군청소재지로 배후지역의 인구감소, 자영업자의 과다, 그리고 신시가 지 개발 등에 따른 하드웨어의 과잉공급의 결과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과 원도심의 공동 화라고 하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바, 특히 2004년도 도시정비의 차원에서 서 천구시장(후적지)을 신시장으로 이전하면서 촉발된 원도심 상인들의 불만으로 인해 행정 과 침해한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비 조사 과정에서, 구시장 문제가 시장 이전만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원도심 상업 환경의 불량과 외곽의 주민 소비자들의 도심 진입의 어려움, 그리고 그에 따른 주민소비자들의 인근 도시 이탈이라고 하는, 매우 복합적인 상황의 결과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고, 대안 의 모색으로서 후적지뿐만 아니라 후적지 정비를 통하여 서천읍내 공간 환경 및 공간문화 전반의 재구성을 위한 연구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도시재생의 방법으로 서천 봄의마을을 조성하였다.

사업개요

사업명	서천 봄의마을
건물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16일원(6필지)
사업규모	연면적 : 5,500.42㎡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골조
주요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1종근린시설
시행기관	서천군청
담당부서	생태도시과
부서담당	정재영
설계처	비드종합건축사사무소 / 윤희진 (경기대학교)
시공사	HS 홀딩스
공사기간	2009. 3. 1 ~ 2011. 12. 31

©윤준환, 사진 윤준환





사업의 특성

서천읍의 문제는 비단 서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지방 소도시가 직면한 일반적인 문제이다. 대부분의 소도시가 공동화된 원도심과 재래시장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 원인을 하드웨어의 잉여와 상업공급의 과잉, 그리고 양판점 위주의 소비패턴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프로젝트 또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반복되어온 구시가지의 이전과 개발에 관련된 사업의 일환이다.

사업 특유의 문제점과 해결책

주민참여계획을 통한 주민주도 사업수행 구도의 마련

- 이해당사자들의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여 주민과 행정, 주민과 주민이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어 계획에 참여토록 했다.

관련분야를 포괄하는 협동연구

- 지역 만들기를 전제로 분업이 아닌 통합과 협업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도시, 건축, 공공디자인 분야는 물론 유통, 농업, 마을 만들기, 문화 활동분야의 전문가들을 망라한 긴밀한 협동연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코디네이터가 이를 조율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였다.

철저한 현장조사에 근거한 계획

- 지역의 상업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여러 차례의 다각적인 주민면담조사를 실시, 공간 이용자들의 의식과 요구조건을 설문조사, 답사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운영관리에 중점을 둔 계획

- 화려한 디자인의 문제보다는 장기적 운영주체의 조기선정과 계획과정의 참여, 운영관리에 초점을 둔 계획의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발주자의 노력 및 성과

사업추진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심의하고 중요한 결정시에는 그 내용을 별도의 주민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봄의 도시 서천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주체가 되어, 조서오가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토록 하였다. 서천군 공무원의 초기 의무가입을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 유기농 생협의 초기 인적기반을 지원하는 등의 행정지원과, 시설사용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후 자발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는 등의 사후 관리계획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다.





심사평

서천 북의 마을은 도시정비 차원에서 기존시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토지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문화로부터 소외되기 시운 소도시 거주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1)철저한 현장조사에 대한 계획수립으로 이용률 높은 건축물 조성, 2)도시 건축 공공디자인 분야 뿐 아니라 다른 활동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밀하게 협동 연구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 3)행정주체가 의지를 갖고 이용자의 의도대로 공간 훼손 방지, 4)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 역할을 훌륭히 수행 하는 점이 돋보인다. 추후 공공건축사업의 패러다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공공 및 지역사회에서의 잠재적 역할이 높이 평가된다. 또한 사업진행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의 협력이 가장 돋보이는 사업으로, 향후 지역주민을 긴밀하게 단결시키고 문화적으로 성숙케하는 구심적 역할이 가능한 공간으로 사료된다.



INTERVIEW

서천 봄의 마을

/ 2012년 국토부의 공공건축상을 수상하게 된 소감은?

봄의마을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오랜시간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주민과 설계자 및 공사관계자와 함께 2012년 대한민국 공공건축부분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이유로 수상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현대사회 대부분의 지방도시에서 나타나는 구도심 공동화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는 여러 가지 가운데 이번 프로젝트가 의미가 있는게 아닌가 싶다.

서천 봄의 마을 프로젝트는 도시재생을 위한 하나의 시도이며, 공공성 구축을 위한 과정이다. 더욱이 여기 서천에서는 주민, 군청, 전문가 집단 등의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커뮤니티에서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재 절차와 노력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었기에 더욱 소중한 실천적 경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봄의 마을에서는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로 이어지는 기존의 시스템에 더해져 전체의 프로세스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 또 다른 한 부분을 언급할 수 있는데, 커미셔너로서의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즉, 주민들을 만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거치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적 구조 사이에서 공공을 대변하여 중재와 조정을 해왔던 커미셔너의 역할이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했으며, 이런 과정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었기에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 공공건축이란 어떤 의미이며, 그 개념을 어떻게 반영했나?

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의 도시공간은, 과거의 것과 새로운 것이 이질적 구조로 충돌하며 역사적 및 문화적 연속성을 지니지 못하고 효율과 기능위주의 가치관에 지배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주인인 사람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도시공간으로 변모하기 일쑤였다. 이에 봄의 마을을 기획함에 있어서는 '문화장터로서의 광장'을 주개념으로 하였다. 공공을 위한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평생교육센터, 청소년 공립학원, 청소년 문화센터, 장바구니 도서관, 여성회관, 노인정이 그리고 기존의 지역경제와 맞물리는 기능으로서 도농 직거래장터, 새벽시장, 유기농 생협, 생계형 임대상가 등이 한 공간에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의 복합화는 봄의 마을이 추구하는 문화중심 만들기 주요 골격을 이룬다. 즉, 계획은 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활동성 위주의 개별적 공간구성에서 시작하지만, 이들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긴밀한 연계와 네트워크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줄임과 동시에 부분별 배타성을 극복하고 합리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간에서의 공공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 프로젝트 수행에 가장 어려웠던 점과 해결을 위한 대책은?

지역주민들과의 합의가 도출되어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토지 및 건물 추가 매입요구에 따라 설계가 일부 변경되고 공사가 중지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아 공사가 장기화 되었으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의 재협의를 통해 건물 추가 매입 및 단지 외곽에 기존토지를 대토(환지)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고 추가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의회를 설득하는등 공사와 관련된 민원해결 및 예산확보가 가장 힘들었다.

/ 향후 공공과 대중의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위해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문화적 공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공공건축물이 건축물로서의 가치 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 및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본계획부터 적극적인 배려를 통한 광장 및 조경공간등을 다양하게 확보하고자 하며 특히, 국립생태원 및 해양생물자원관과 연계한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어메니티 서천 구현을 위한 생태 환경공간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고자 합니다.

/ 외관의 재료나 공법상 특징적인 것은?

광장에 들어서면 그 바닥으로부터 건축물의 윤곽이 하늘과 맞닿은 부분까지 연속된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함으로써 광장을 일체화하려 했다. 즉, 광장을 둘러싸는 시설물은 개별적이라기보다는 통합의 단위로 배열되며, 그 건축물의 입면들은 마치 방을 둘러친 벽과 같이 광장의 경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또한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인데, 이에 우리는 공공 건축물의 재료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로 내구성을 이야기하고 싶다. 시간이 경과하며 변화해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재료, 불특정 다수의 거친 손길에도 견디어낼 수 있는 견고한 재료를 선택하고자 하였다. 그러다보니 구조가 마감이고 동시에 공간을 한정하는데 강성을 지닌 틀로서 콘크리트를 선택하게 되었다. 설계의 과정에서도 언급되었던 의견이지만, 혹자는 돌이나 나무 등 자연의 소재와 상반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부정적 이미지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달랐다. 원래 본질적으로 건축적 행위는 인공적이다. 과연 어느 누가 같은 양의 건축용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CO2가 노출콘크리트의 경우보다도 적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자연을 이야기하고 자연에서 모티브를 찾지만 그를 표피적으로 다루는 행위는 자칫하면 오히려 '거짓 자연'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공간-구조-재료가 하나로 될 수 있는 구축의 방식으로 노출콘크리트를 선택하였다.



국무총리상

/
윤동주 문학관

문화 집회시설, 문학관

서울시 종로구

2012 KOREA
PUBLIC BUILDING
AWARD

2012 KOREA
PUBLIC BUILDING AWARD

2012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국무총리상

윤동주 문학관

문학관
서울시 종로구

사업배경

시인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 문과 재학 시절 종로구 누상동 9번지에서 소설가 김송(金松, 1909~1988)의 집에서 문우 정병욱과 함께 하숙생활을 하며 종종 이곳 인왕산에 올라 시정(時情)을 다듬곤 했다. 〈별헤는 밤〉, 〈자화상〉, 그리고 〈쉽게 쓰여진 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그의 대표작들을 바로 이 시기에 썼으며 그런 인연으로 2010년엔 윤동주 시인의 언덕을 기 조성하였고 그와 연계한 윤동주 문학관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2009년에 용도폐기된 청운가압장과 물탱크를 재활용하여 2010년에 조성된 윤동주 시인의 언덕과 연계하여 윤동주 문학관으로 리모델링 하였다.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면 쉽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그보다는 기존 건물을 보존하여 오랜 시간 그 장소를 지켜온 도시의 집합적 기억을 살려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해석하였다.

사업개요

사업명	윤동주 문학관
건물위치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3-100 (구 청운가압장)
사업규모	연면적 187.7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시설	제1 전시관(시인체), 제2 전시관(열린우물), 제3 전시관(달힌우물), 시민휴식공간(별뜨락)
시행기관	종로구청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부서담당	윤명중, 윤인창
설계처	아들리에 리움 서울
시공사	(주)제선엔지니어링
공사기간	2011. 04 ~ 2012. 06





사업의 특성

기존의 가압장과 물탱크가 지니고 있던 고유의 공간적 특성을 최적화하여 계획하였으며, 화려함보다는 절제의 미를 살려 채움이 아니라도 발견과 비움 또한 건축임을 보여주는 사업이다. 현재 윤동주 문학관은 우리 도시에 산재한 수많은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재생과 활용의 의미 있는 선례로 전문가들과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사업 특유의 문제점과 해결책

도면이나 관련 도서가 없는 시설물

- 구조안전진단 및 실측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설계 전에 파악하였다.

거대한 물탱크의 활용방안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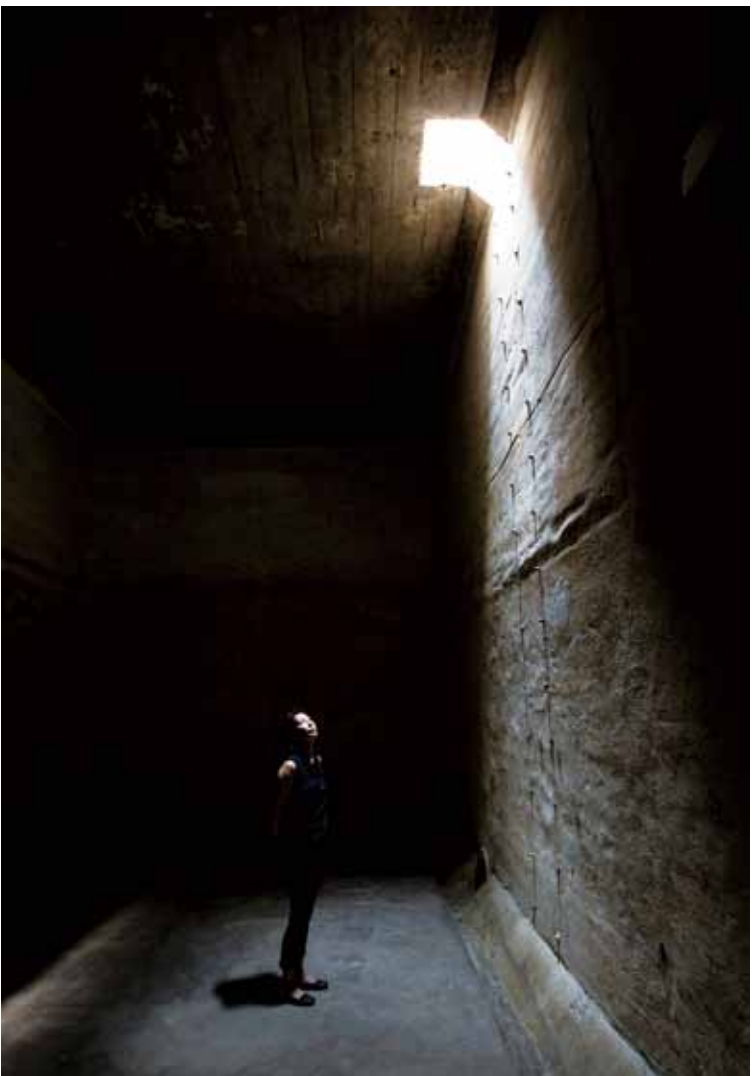
- 5.5x11x5.8의 거대한 물탱크 2개에는 사적인 빛과 울림, 그리고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벽의 물자국이 있었다. 감추거나 변형시키기에는 너무 아까워 최대한 보존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실내도 실외도 아닌 개방된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기존 시설의 복원 및 재활용 방법 강구

- 화려하고 현란한 수사보다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윤동주 시인과 어울리게 잘난 척하지 않고 조용하게 말하는 건물로 계획하였다. 바뀐 듯 안바뀐 듯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의 집합적 기억을 존중 하였다.

발주자의 노력 및 성과

작은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설 및 경관을 유지하여 리모델링을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폐건물과 물탱크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세월의 흔적을 살리는, 폐건물 재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및 공간 활용도의 극대화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철저한 안전관리와 품질과닐을 위해 실무자, 구청장, 국장, 담당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회의, 현장답사를 실행하였으며, 종로구청 도시공간 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심사평

윤동주 문학관은 도심 재생사업으로 공공건축 리모델링의 대표적 사례로, 사업 전 과정에 걸친 디자인 관리가 양호하였으며 창의적 디자인, 창의문 서울성곽 등 역사문화시설과 윤동주 시인의 언덕 등 주변 맥락과의 연계, 지역성 재고의 측면에서 돋보이는 사업이었다. 작은 건물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 재생함으로써 소건물의 재생과 활용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 리모델링 중 기존 물탱크를 발견하여 이를 포함하여 리모델링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고자 한 발주처의 노력이 돋보인다. 추진 과정이 관행이 아닌 다양한 의견 수렴한 것이 보이며, 단일 건축가에 의한 관리에 의하여 일관적인 건축의 진행이 보인다. 시당송회 프로그램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를 통한 역사해설 프로그램 등 주변 지역에 문화 파급을 하고 있다.

INTERVIEW

윤동주 문학관

/ 2012년 국토부의 공공건축상을 수상하게 된 소감은?

무엇보다도 윤동주문학관은 200㎡ 밖에 안 되는 소박한 소규모 공공건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남다른 애착을 갖고 진행하였고 그런 수고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다. 쉽게 진행하려면 기존의 가압장을 헐어버리고 신축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윤동주 문학관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 도시에 산재한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재생과 활용의 의미 있는 선례가 되기를 희망한다.

/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이유로 수상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신축이 아닌 소규모 시설물의 재생 사업에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또 이를 위해 건축가를 중심으로 발주처, 전시기획, 시공사 등 관여하신 모든 분들 간의 긴밀한 작업이 있었고, 이런 애착과 긴밀한 관계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본다. 특히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건축가가 현장감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 공공건축이란 어떤 의미이며, 그 개념을 어떻게 반영했나?

공공건축이란, 특정한 대상이나 주인이 없으면서도 모두가 주인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많은 경우, 또 그 규모가 작을수록 책임감이 걸려된 결과가 나오는 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그 규모와 관계없이 충분한 시간과 책임감을 갖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윤동주 문학관의 경우 무엇보다도, 그 장소가 내재하고 있는 힘이 중요했으며, 주어진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인의 성품과 어울리게 재생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 프로젝트 수행에 가장 어려웠던 점과 해결을 위한 대책은?

가장 어려웠던 것은 기존건물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가압장도 물탱크도 기초나 구조물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기에, 설계당시에는 이론적인 구조 안전진단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모든 것은 공사를 하면서 발견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 했다. 소규모 이기는 하나 모든 공공시설물의 자료 아카이빙 시스템이 절실했다.

/ 향후 공공과 대중의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위해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윤동주 문학관과 같은 건축물의, 장소의, 동네의 재생사업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새로운 의미 부여를 통해 이미 있는 것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기를 바란다.

/ 외관의 재료나 공법상 특징적인 것은?

외장은 노출코크리트와 윤동주 시인의 순수하면서도 수수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부드러운 백색 석회암 분위기의 라임계 천연 칼라 몰탈을 사용하였고, 에너지 효율을 위해 외단열을 하였으며, 제1전시실은 잘 다듬은 철판을(정면의 슬라이딩문, 전시대등) 제2, 제3전시실은 철판을 거칠게 상용하여 물탱크의 이미지와 어울리게 다루었다.

국토해양부장관상

/ 보성군청

공공업무시설(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
전라남도 보성군

2012 KOREA
PUBLIC BUILDING AWARD

2012 KOREA
PUBLIC BUILDING
AWARD

국토해양부 장관상

보성군청

보성군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
전라남도 보성군

사업배경

군 기존 청사 본관은 1984년 건립되었고, 별관들은 1970년에 건립된 이후 40년 경과되어 건물이 낡고 설비 등의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이 증대 할 뿐 아니라, 근무여건이 열악하였다. 특히 별관 동은 안전 진단결과 E급 판정으로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으며 복지업무, 전산화행정 등 행정 수요가 증가 되면서, 임시사무실과 각종시설이 필요하여 옥상 증축이 불가피하게 증축 사용해 왔으며,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한 상태였고 건축물 설비 노후화로 행정업무 효율성 및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져 건물관리 비용이 증가되었다. 이에 2007.2월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방안이 나왔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 마련으로, 신청사 건립 규모는 최소화하고, 기존청사는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으며, 기존청사를 리모델링을 통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최대한 내 입주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다. 특히 군 청사 이전 신축보다는 현 위치가 보성군의 정체성을 담고 있어 역사적 의미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군청사 이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하여 보존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사업개요

사업명	보성군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
건물위치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사업규모	연면적 11,146㎡(지하2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시설	사무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주차장(300여대), 태양 광발전설비(90kw)
시행기관	보성군청
담당부서	재무과 재산관리계
부서담당	김대주
설계처	(주)에스디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시공사	경남기업(주)
공사기간	2008.11. ~ 2010.11.25.





사업의 특성

고효율기기사용으로 저탄소 녹색청사를 실현하였고 주차장 옥상을 조경수와 잔디로 녹지화하여 군민에게 개방 하는 등 친환경 청사를 조성하였다. 또한 공기열 방식 냉난방 시스템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100% 절감하고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였으며, 전열교환기를 사용하여 사무실 내부 환기 시 열에너지 손실 방지를 통하여 시설 개선을 피하였다.

사업 특유의 문제점과 해결책

군청사 신축이전과 기존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이해관계 대립해결

민선 3기(2004년)때부터 군 청사 이전이 대두되어 오던 중 민선 5기(2006년)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청사신축이 거론되어 계획을 수립하면서 역주민의 반대 여론과 찬성여론이 양분되어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시, 제3안의 "본관리모델링 및 별관증축"으로 결정 추진하여 주민화합과 예산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주차장 협소로 주차난과 군 청사 주변 상가 불편초래

군 청사 부지의 주차면적이 턱 없이 부족해 설계변경을 거듭하면서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확보하여 300여대를 주차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차장옥상은 군청광장과 조경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군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주차난과 주민 휴식처를 동시에 해결하였다.

발주자의 노력 및 성과

군청사 건립계획 타당성조사용역(2007.10.)으로 주민설명회 및 직원 의견 수렴을 거쳐 군청사 건립계획안 확정하여 주민들의 분쟁을 중재하였고, 좋은 공공건축 경험이 많은 건축사 참여를 위해 입찰 참가 자격사전 심사(PQ)제도를 도입하여 군청사 설계에 부합한 설계업체에게 건축설계를 담당케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로 2010년 행정안전부 공공청사 건축부분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각종 청사 건축시 새로운 모델로 제시되고 워크숍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심사평

보성군청사는 이미 세워진 신축 계획을 기존 건물의 증개축으로 전환하여 얻은 예산절감의 노력이 크게 보인다. 군청사 증개축을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청사 개발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주변의 주민의 압력과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이런 건축 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및 발주처의 기획과 추진력이 매우 우수하며, 청사 건축 등의 공공건축의 개발 방향에 좋은 사례로 사료된다. 대지의 LEVEL 차이를 주차장을 통하여 해결함과 동시에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시설의 군민에 대한 개방이 보이며, 부가적인 커뮤니티 기능 등 지역과의 연계도 우수하다.

INTERVIEW

보성군청

2012년 국토부의 공공건축상을 수상하게 된 소감은?

논어에 나오는 「고진감래」라는 말이 생각난다. 그만큼 발주자로서 고뇌의 양이 많았던 같다. 이번 상을 받음으로 그동안 수고했던 것들이 빛을 발하며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또한 이상을 받기까지 예산확보와 현장을 오가며 관심을 아끼지 않으셨던 정중해 군수님과 동료 그리고 지역주민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 건축은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무대이고, 우리 삶을 담은 그릇이라고 일컬어지듯이 군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행정서비스를 받는 군민들이 행복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가 지역발전에 큰 그릇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이유로 수상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군청사건립계획이 6년여동안 군민정서와 부합되지 못하고 열악한 군재정으로 방향을 잡지 못해 장기적으로 표류 하던 중 2007년(민선4기)정중해군수에 이르러 군청사 이전신축계획(안)이 재검토되어 청사건립타당성조사용역 발주로 주민설명회 개최와 당면해 있는 군재정 형편과 건립위치 적정성 등 가장 효율적인 본관리모델링 및 증축계획안이 확정되어 현위치에 건립함으로써 토지매입비와 건축자재비를 절약하여 최소의비용으로 가장효율적인 공공청사를 건축하였다고 생각하며, 타 차단체에 리모델링하는데 벤치마킹하기위해 많은 지자체에 파급효과를 하였던 것이 높이 평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 공공건축이란 어떤 의미이며, 그 개념을 어떻게 반영했나?

공공건축물의 자산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것을 상승시키는 것이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조성과 운영의 기본전제이자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공공의이익이 곧 개인의 이익이되므로 공공건축물은 기획,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의 절차를 관리하고 국가 자산으로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하여 군민과 직원이 쾌적하고 편의성 있는 업무기능과 친환경적인 공간에서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있으며, 효율적이며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사용으로 향후 군청사 유지관리비 절감에 최대한 반영하였다.

/ 프로젝트 수행에 가장 어려웠던 점과 해결을 위한 대책은?

2004년부터 군청사 이전 신축계획이 있어 2007년 본관리모델링및증축계획이 확정 될 때까지 위치선정, 예산확보, 주차장확보 등 군민의 뜻을 모으는데 시간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었다.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 청사이전신축대비 226억원을 절감키위해 본관 리모델링 및 증축을 시행하므로 공사기간에 소음과분진에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이를 위해서 군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그룹용역으로 사업방향을 제시하여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 하였다.

/ 향후 공공과 대중의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위해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있다면?

건축은 기능, 구조, 아름다움의 조화를 기본으로 많은 이야기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좋은 건축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청사와 도시계획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조화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도시설계와 건축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사업 추구 하고 싶다.

/ 외관의 재료나 공법상 특징적인 것은?

본관은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화강석 건식공법으로 단열재를 넣어서 유지관리를 고려하였고 미래는 지방화시대이므로 석재를 인근지역과 우리 군에서 생산된 석재를 사용하여 군청사에 의미부여를 하였으며, 아간경관LED조명과 전열교환기(환기)를 시설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꾀하였다. 냉난방과 급탕을 EHP를 사용하고, 고효율기자재와 신재생에너지 이용으로 녹차수도 보성에 걸맞은 녹색청사로 변모하여 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보성군을 다녀갔다.

국토해양부장관상

영등포 쪽방촌 임시거주시설

가설 건축물(임시숙소)
서울시 영등포구

2012 KOREA
PUBLIC BUILDING
AWARD

2012 KOREA
PUBLIC BUILDING AWARD

국토해양부 장관상

영등포 쪽방촌 임시거주시설

가설건축물(임시숙소)

서울시 영등포구

사업배경

영등포역 주변은 노약자,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장애인 등이 밀집거주하고 있으며, 1평 정도의 작은 거주공간, 소방안전 취약 및 공동화장실, 공동부엌 사용 등 최악의 주거환경에 거주함에도 생활환경에 대한 지역개선 여력이 없어 지원 필요하였다. 이에 사회적 배려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최저 주거안전선 마련 및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영등포 쪽방 촌 임시거주시설을 조성하였다. 이 시설은 서울시가 영등포역 인근에 밀집해 있는 쪽방촌의 시설개선을 위해 추진중인『영등포 쪽방 촌 리모델링(수선) 시범사업』의 기반시설로서, 리모델링공사 기간동안 거주민이 임시로 입주해 살다가 공사완료 후 재입주할 때까지 생활터전이 되어주는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사업개요

사업명	영등포 쪽방 촌 임시거주시설
건물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11-28번지 일대
사업규모	연면적 535.53㎡
구조	해상용 컨테이너, 철골조
주요시설	거실-36실(2m×2.4m, 1.45평), 창고, 화장실, 샤워실, 관리실, 조리실, 커뮤니티 시설
시행기관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
담당부서	도시재생본부 재생기획팀
부서담당	이영철, 채민석
설계처	유아이에이건축사사무소
시공사	GS시엔티, 석암건설
공사기간	2012. 9. 28. ~ 2012. 12. 14.

©이재성, 사진 이재성





사업의 특성

서울시에서는 쪽방촌 리모델링사업의 추진을 위해 자치구인 영등포구, 사업지 인근 사회 복지단체인 광야교회, 그리고 시범사업대상 가옥주와 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사업시행은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가 서울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기술용역, 시공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등포 쪽방촌 임시거주시설은 견고한 해상용 컨테이너를 소재로 활용한 가설건축물로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자활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업의 특성

- 임시거주시설 부지확보 : 리모델링공사의 경우 공사기간동안의 임시거주지의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인데 영등포 쪽방촌의 경우 인근 고가차도 하부의 도로부지에 공용주차장이있어 부지확보가 가능하였다.
- 제한된 예산 : 모든 공공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예산에서 계획을 실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설계자의 재능기부, 물품발주를 통한 제경비의 절감, 해운회사를 통해 중고 컨테이너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재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절감하였다.
- 의견조정의 어려움 : 서울시, 영등포구, 시행자, 재능기부자, 복지단체,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직무와 입장차이를 가지는 관계자들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매주 1회씩 약40회의 현장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었다.

발주자의 노력 및 성과

건축공사로 발주하는 것에 비해 물품제작 및 설치로 발주할 경우 많은 제경비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상 필요한 수도, 전기의 인입 및 기초설치 등 공사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발주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많은 부정적 의견이 도출되었으나, 행정안전부 등 관련 규정 해석을 담당하는 기관과 많은 협의 및 설득을 통해 발주방법에 대한 적정의견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건립 부지가 현황 도로였기에 발생한 행정적 문제점들을 많은 노력을 통해서 발견한 절차이행의 미비점을 제거하여 소유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심사평

영등포 쪽방촌 임시거주시설은 모델링 공사기간 동안 거주민이 임시로 거주하다 공사완료 후 재입주시까지 생활하는 임시시설로, 임시 거주시설 사업에 대한 기획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업이다. 또한 재능기부방식에 의한 설계 진행, 현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현장 대화 방식 등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리모델링 공사 시 사회적 기업 형식으로 기술교육을 병행하여, 쪽방촌 거주민을 우선적으로 인부로 채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에도 관심을 가지는 세심한 배려 또한 보인다. 도로 하부라는 버려진 공간을 활용하여 시설을 조성한 아이디어 또한 참신하다. 임시 시설임에도 기존 쪽방촌 거주민들이 상당히 만족감을 나타내며, 쉼터, 도서관, 운동 시설 등 지역주민과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해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INTERVIEW

영등포 쪽방촌 임시거주시설

/ 2012년 국토부의 공공건축상을 수상하게 된 소감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것에 대해 큰 기쁨을 느낀다. 이번 수상은 항상 사회의 어려운 곳을 살피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하 서울시, 영등포구 관계공무원 및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사업 추진단'의 많은 분들께서 함께 노력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이유로 수상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오랜 시간동안 드러나서 보이지 않았던 사회의 가장 어려운 계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구현되었던 프로젝트라고 생각된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내용일지라도 현실적인 시행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 추진되지 못했던 일을 여러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및 지역사회가 뚫돌 뚫돌 이루어 낸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

/ 공공건축이란 어떤 의미이며, 그 개념을 어떻게 반영했나?

건축이란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처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그 삶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건축은 이러한 삶의 그릇을 만드는데 있어 그 삶을 영위하는 대상을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로 폭넓게 규정하여 보다 많은 사람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는 건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프로젝트 수행에 가장 어려웠던 점과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보다 프로젝트의 수행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 집단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영등포구, 일정기간 임시거주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 거주민들, 가족주와 대상지 주변 주민들 등 서로가 자신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자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눔으로서 조금씩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 향후 공공과 대중의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위해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현재 사회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력개선의 여력이 부족한 소외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이번에 추진된 사업은 거주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이었지만 이러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외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문화활동을 위한 사업에도 참여하고 싶다.

/ 외관의 재료나 공법상 특징적인 것은?

영등포 쪽방촌 임시거주시설은 13년 정도 사용된 해상용 컨테이너를 재활용하여 만들어진 가설건축물이다. 기성품의 컨테이너하우스는 일반적으로 가설사무실이거나 이동식 화장실 정도로 사용되는 성능을 가지는데 비해 주거시설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단열재와 창호 등 특히 단열성능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했다. 컨테이너 부분은 공장에서 제작해와 조립하고 외부의 계단, 데크, 기조, 정화조 배수 등의 작업만 현장에서 이루어 지므로 전체 공기가 약 2개월 정도로 단기간에 설치 가능했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소방시설에서도 각종 감지기 및 경보기, 소화설비 등을 갖추고 단열재에도 자기소화기능이 있는 우레탄폼을 사용하여 화재 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토해양부장관상

/ 영주 주민생활문화 복지지원센터

주민복지시설
경상북도 영주시

2012 KOREA
PUBLIC BUILDING
AWARD

2012 KOREA
PUBLIC BUILDING AWARD

2012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국토해양부 장관상

주민생활문화 복지지원센터 (참사랑 주민복지센터)

공공디자인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경상북도 영주시

사업배경

주민생활문화 복지지원센터가 위치한 지역은 역사문화가로에 면한 향교골, 신사골, 관사골의 연결고리며, 영주 도심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풍경을 보여주는 주거군락지이고 영주향교, 안양사, 청소문화의집, 향토음식체험관, 상망동 주민센터, 해방이후 근대건축물인 철도관사, 후생시장, 철탄산 자연공원 등 도시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의 매듭들로 구성된 지역이다. 오래된 주거군락지로서 도시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의 매듭들로 구성된 지역의 여메너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주민생활문화 복지지원센터」를 조성하며 신사골 및 향교골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향토음식체험관 조성사업」 등과 시설을 공유하고 연계·통합하고자 참사랑 주민복지센터 사업을 시행하였다.

사업개요

사업명	주민생활문화 복지지원센터(참사랑 주민복지센터) 일원 공간환경 개선사업
건물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12-16
사업규모	연면적 187.72 ㎡
구조	목조 한식기와
주요시설	주민생활 문화 복지지원센터, 주민마당, 공원조성 및 외부공간 연계
시행기관	영주시청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부서담당	정태호, 안창주
설계처	(주)디자인그룹오즈건축사사무소
시공사	(주)창신종합건설, 비지종합건설(주), 청솔종합건설(주)
공사기간	2011. 10. 4. ~ 2012. 11. 21.





사업의 특성

향교골(영주1동)과 신사골(하망동)이 교차하는 지점이자 철탄산 등산로와 영주항교로 가는 길에 면한 근대 도시형 한옥 거주지역에 전통건축양식(한옥)의 「주민생활문화 복지원 센터」를 조성하고, 역사·문화·생활사적 가치를 토대로한 주민 주도형 공공프로그램 제안을 통해 다양한 매듭으로 엮어진 주거공간의 타래를 주민 스스로 풀어 연결 하고자 했다. 특히, 인근에서 조성되고 있는 향토음식체험관 및 경로당과 마당을 공유하고 신사골 및 향교골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차장 및 공원을 공유하도록 통합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발주자의 노력 및 성과

민간 건축물 및 토지의 매입 불가

사업시행중 사업대상지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사전에 직접 인감을 첨부하여 동의하였음에도 사업시행 중 보상협약이 진행되자 발생한 분쟁에서, 사업 대상지를 인근 사유지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원만한 해결을 꾀하였다.

골목길로 이용되는 사유지의 소유자의 행정소송

센터와 경로당, 향토음식체험관의 사이에 사유지로 남아있던 골목길의 소유자가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대지의 가격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설득과 이해로 원만히 해결해 매입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마당이 더 넓어지고 주민들에게는 사업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디자인관리단의 노력

「디자인관리단」은 「MP」및 「주민(운영위원회)」과 긴밀히 협의하여서, 조성과정에서 발생된 분쟁들을 해결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발주자의 노력 및 성과

영주시에서는 2009년 「공공건축 통을 통한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2011년 9월 공공건축 및 공공디자인의 통합관리를 위한「디자인관리단」을 조직했다. 그리고 「디자인관리단」의 주도로 2012년 11월 통합마스터플랜의 역사문화거리의 세부계획으로 본「주민생활문화 복지지원센터」조성을 마무리 했다. 디자인관리단」은 기획단계에서 부터 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운영에까지 충분한 협의와 검증을 하여 오류를 최대한 줄였으며, 또한 흠어져 분리시행되고 있었던 개별사업을 연계하고 공유·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심사평

영주 주민생활 문화 복지지원 센터는 디자인 관리단 이라는 도시의 환경개발을 위한 조직의 운영 및 활동이 돋보인다. 주민 복지지원 센터의 서비스 기능이 핵심이 되어서 마을 환경 개선에 파급되는 효과가 가시적이며, 복지지원 센터의 프로그램이 지속적이고도 확대되어 가는 능동성을 확인했다. 디자인단장을 중심으로 한 시와 주민과의 협조가 돋보이며 이를 통해서 이루어진 작업 과정이 매우 모범적인 사례이다. 특히 하나의 사업이 아닌 영주시 인근의 시설과의 연계성을 전체적인 계획으로 제시, 조절하고 있어, 공공건축의 모범사례로 보인다.

INTERVIEW

주민생활 복지지원센터

/ 2012년 국토부의 공공건축상을 수상하게 된 소감은?

대단히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작은 지방 도시의 공공건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상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잘 하라는 격려로 알고 열심히 하여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이유로 수상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이 프로젝트는 향교골(영주1동)과 신사골(하망동)이 교차하는 지점이자 철탄산 등산로와 영주향교로 가는 길에 면한 근대 도시형 한옥 거주지역에 전통건축양식(한옥)의 「주민생활문화 복지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역사·문화·생활사적 가치를 토대로 한 주민 주도형 공공프로그램 제안을 통해 다양한 매듭으로 엮어진 주거공간의 타래를 주민 스스로 풀어 연결 한 사업이다. 특히, 인근에서 조성하고 있는 향토음식체험관 및 경로당과 마당을 공유하고 신사골 및 향교골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차장 및 공원을 공유하도록 통합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심사위원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 공공건축이란 어떤 의미이며, 그 개념을 어떻게 반영했나?

“건축학개론” 영화를 보면 “인간이 아무리 꾸며도 자연이 만드는 것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란 대사가 나온다. 제가 생각하는 건축은 자연에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사람(人) 즉 주민의 공공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이 공공건축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프로젝트의 제목도 「주민생활문화 복지지원센터」로 정하였다.

/ 프로젝트 수행에 가장 어려웠던 점과 해결을 위한 대책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추진도 수월하고 보람도 있으며 특히, 우리 공무원들에게 일의 즐거움이 더 많지만 항상 보상이 가장 어렵다. 이 프로젝트의 사업시행 전 사업대상지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사전에 직접 인감을 첨부하여 동의하였음에도 사업시행 중 보상협의를 진행되자 “배팅을 하라”는 말까지 하면서 보상에 불응하였고 저는 「디자인관리단」과 「MP」, 「주민」의 의견을 들어 변경 기획(계획)하고 사업 대상지를 인근 사유지(공유지)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남은 보상비를 주민들과 협조하여 경관에 저해되던 인근 2층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비용 집행하여 경관을 개선하게 되었다. 또 센터와 경로당, 향토음식체험관의 사이에 사유지로 남아있던 골목길의 소유자가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대지의 가격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우리 시에 제기하였으나 소유자를 설득하고 이해시켜 매입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마당이 더 넓어지고 주민들에게는 사업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 향후 공공과 대중의 필요로운 문화적 삶을 위해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영주시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에는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에 필수적인 좋은 건축가와 N.G.O.가 많이 부족하다. 건축가들의 재능기부 활용을 위한 인력은행을 운영하여 좋은 건축가들이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건축가 재능기부 은행」을 한번 운영해 보고 싶고, 지금 그 준비를 아주 조금씩하고 있다.

/ 외관의 재료나 공법상 특징적인 것은?

특별한 특징은 없지만 향교골이라는 마을지명과 오래된 주거지인 마을의 유래를 고려한 전통 한옥 방식으로 건축하고 경로당 옥상에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경로당, 참사랑주민센터, 공원등, 보안등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탄소배출감소까지 고려하였다.

한국문화공간 건축학회장상

/ 계룡면사무소

공공업무시설
충청남도 공주시

2012 KOREA
PUBLIC BUILDING
AWARD

2012 KOREA
PUBLIC BUILDING AWARD

2012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한국문화공간 건축학회장상

계룡면사무소(공주)

공공업무시설
충청남도 공주시

사업배경

계룡면청사는 2,014㎡의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728.39㎡의 건축물로 1975년 준공되어 사용해 오던 중, 건물이 매우 비좁고 노후화 되어 균열과 누수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건물의 안전관리에도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룡면사무소 건립계획을 2009년 2월에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실행하여 2012년 11월 준공하게 되었다. 신축된 계룡면 청사는 지역주민들의 밝고 활기찬 시민 문화생활 향상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업개요

사업명	계룡면사무소
건물위치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50-3(영규대사로 489)
사업규모	연면적 998.86㎡
구조	철근 콘크리트
주요시설	사무실, 소회의실, 대회의실, 서고, 복지상담실
시행기관	공주시청
담당부서	시민국 회계과
부서담당	조영규, 성낙묵
설계처	도움건축사사무소 대표 한진수, (공공디자인: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조한 교수)
시공사	아인건설(주)
공사기간	2011. 10. 17 ~ 2012. 11. 16





사업의 특성

계룡면사무소는 1975년에 건축되어 노후화 및 균열로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그간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자연의 유입을 통한 소통공간 조성이라는 기본컨셉을 바탕으로 담장을 제거, 주민들이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는 면사무소를 조성하였다. 또한,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창 면적비를 50%미만을 유지하였으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LED제품)을 사용하고, 물절약을 위한 절수용 수전설비를 설치하였으며, 기계 환기시설을 자연환기창으로 대체하였고 현관 방풍실 설치 및 창호일부를 축소 조정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였다.

사업 특유의 문제점과 해결책

계룡면사무소는 1975년에 건축되어 노후화 및 균열로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그간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자연의 유입을 통한 소통공간 조성이라는 기본컨셉을 바탕으로 담장을 제거, 주민들이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는 면사무소를 조성하였다. 또한,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창 면적비를 50%미만을 유지하였으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LED제품)을 사용하고, 물절약을 위한 절수용 수전설비를 설치하였으며, 기계 환기시설을 자연환기창으로 대체하였고 현관 방풍실 설치 및 창호일부를 축소 조정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였다.

발주자의 노력 및 성과

공주시에서는 공공디자인을 공공건축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7년부터 홍익대학교 건축대학을 낙찰자와 공동수급 협정방식으로 모든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동안 신축된 공공건축물과 같이 유리부분이 많아 냉 난방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되고 있지 못하던 기존의 면청사를 벗어나, 계룡면의 지역성에 부합하는 계룡면청사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심사평

계룡면사무소는 지자체의 공공건축가 제도 활용을 통한 공공건축가 선임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지역의 명품건축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는 사업이었다. 공공청사 사업을 위한 발주처의 노력이 보이며, 기존의 공공청사와 디자인을 차별화함과 동시에 공간의 주민 이용 배려가 보였다. 내부 디자인 설계 시에도 서고, 창고와 사무공간을 연계하는 방안 적용을 통해 기능통합과 업무효율 제고의 노력이 보인다.

INTERVIEW

계룡면사무소

/ 2012년 국토부의 공공건축상을 수상하게 된 소감은?

이번 수상의 기쁨은 박환용 서구청장님과 많은 역경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 국토해양부 및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공공건축분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이유로 수상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계룡의 상징인 용과 자연과 소통을 주제로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명품 건축물로써 집중 조명을 받았으며, 주민과 이용자 중심의 공공성을 확보, 조화로운 경관과 소통공간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 공공건축이란 어떤 의미이며, 그 개념을 어떻게 반영했나?

공공건축은 공공성이 있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으로 공익성과 공공성을 갖으며, 주민과 이용자 위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화로운 지역경관 창출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의미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계룡산의 이미지로한 주변경관을 창출하였다.

/ 프로젝트 수행에 가장 어려웠던 점과 해결을 위한 대책은?

도시도 아닌 농촌 면소재지에 명품 공공건축을 수행할 때마다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우리시에서는 명품건축이 지역이미지를 높이고 후세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을 설득하였다. 이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다.

/ 향후 공공과 대중의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위해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거나 지역에 방치된 유휴공간을 문화와 공공디자인을 통하여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싶다.

/ 외관의 재료나 공법상 특징적인 것은?

건물의 디자인을 계룡산을 상징하는 용의 모형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2층 동쪽 부분의 높은 곳은 용머리, 남쪽 외부 경사면은 용꼬리로 디자인하여 자연과 소통하는 것으로 컨셉, 외부 마감을 동판 거열잡기로 시공하여 용의 비늘을 연상케하면서 수려한 미관을 연출, 남쪽 방향은 단열 창호 로이복층유리로 시공, 자연채광과 에너지절감에 기여, 후면 북쪽에는 청문개소와 면적을 최대한 줄이고, 벽체 마감을 친환경합성목재사이딩으로 시공하였다.

한국문화공간 건축학회장상

/ 영흥에너지파크

문화집회시설(전시장)
한국남동발전(주)

2012 KOREA
PUBLIC BUILDING
AWARD

2012 KOREA
PUBLIC BUILDING AWARD

2012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한국문화공간 건축학회장상

영흥에너지파크

문화집회시설(전시장)

한국남동발전(주)

사업배경

수도권인 인천시에 속하지만 육지에서 떨어진 영흥도에 있어 수도권의 문화생활을 접하기 쉽지 않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지역사회와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흥에너지파크를 조성하였다. 기존의 삭막한 부지를 문화가 숨 쉬는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발전소 인근지역에 대한 홍보를 겸한 관광인프라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통한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꾀했다.

사업개요

사업명	영흥에너지파크
건물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980
사업규모	연면적 6,119.95㎡
구조	철골조
주요시설	본관동(전시실 및 지역문화시설), 강당동, 옥외테마공원, 주차장(100대)
시행기관	한국남동발전(주)
담당부서	건설처
부서담당	이영기, 김영봉
설계처	(주)엠앤디 종합건축사 사무소
시공사	(주)대우건설, (주)사공테크
공사기간	2005. 12. 05 ~ 2007. 10. 16





사업의 특성

공공건축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공공공간만이 아닌, 제공자와 사용자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공감대를 형성하여 만들어진 공공공간이며, 그 공간을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 및 애착심을 고양시켜 지역 및 도시 브랜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적 자산이다. 이를 위해 영흥 에너지파크 건립 사업은 미래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산업의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꾀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문화체험공간이 전무한 영흥도에 공공건축물을 최초로 건립한 사업이다.

사업의 특성

문화의 불모지에서 전력문화의 싹을 함께 틔우기 위해 내딛은 첫걸음
영흥 에너지파크 건립을 위한 첫걸음을 무사히 내딛기 위하여 사업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담할 T/F팀 (Task Force Team)을 특별히 구성하였으며, 원활한 진행과 높은 완성도를 위하여 T/F팀을 건설처뿐만 아니라 기획처, 발전처의 사내전문가들도 함께 구성하였다.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서 영흥 에너지파크 사업의 타당성과 미래성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당초 영흥화력발전소 3,4호기 사업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영흥 에너지파크 사업을 분리 발주하여 본부지 발전소 건설공사와는 달리 외부의 건축 및 전시 전문가 그룹에 의한 설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 전력 홍보관과 과학체험관을 답사하였으며, 대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시켰다. 이에 따라 수준 높은 설계를 통한 우수한 문화체험공간 건립으로 영흥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발주자의 노력 및 성과

주 사용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강당, 세미나실, 문화교실 등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의 용도와 규모를 비중 있게 계획하였다. 또한 향토 문화관 등 다양한 부대 시설공간을 구성하여 지역의 홍보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순수한 문화집회시설(전시장) 건립 사업 경험에 전무한 실정이라 건축, 구조, 전시, 환경,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내 외부 전문가들로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자문을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설계용역에 선정된 건축, 전시 전문 설계자들과 함께 협의하여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수준 높은 공공건축을 위한 창의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영흥 에너지파크 전시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구성된 운영부서는 최고수준의 관람을 위한 공연환경의 지속적인 관리와 연극, 영화, 콘서트, 뮤지컬 등 정기적인 문화예술공연을 위한 행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심사평

영흥 에너지 파크는 지역사회 및 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게 평가된다. 에너지파크의 외부 공간 활용 프로그램, 시설활용 및 주민참여를 위한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지역주민들에 대한 고려가 보인다. 전력사업은 기피시설로 인식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책정되어있는 주민사업지원비에 추가하여 홍보관을 설립하는 등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INTERVIEW

영흥에너지파크

/ 2012년 국토부의 공공건축상을 수상하게 된 소감은?

발전소 건축만을 담당하던 한국남동발전(주)에게 순수 건축분야인 영흥 에너지파크 사업은 큰 도전이었다. 문화시설이 전무한 영흥도에 최초로 건립된 공공건축물인 영흥 에너지파크는 주민들의 공감과 이해,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없었더라면 그저 하나의 건축물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2009년 인천광역시 건축상 일반건축부문 우수상』에 이은 『2012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수상의 영광을 영흥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이유로 수상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영흥 에너지파크는 발전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발전전문회사로서 순수한 문화집회시설 건립사업의 경험이 없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어 문화체험공간이 전무한 영흥도에 최초로 건립된 수준 높은 공공건축물이다. 또한 전력산업홍보의 메카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영흥도에 대한 홍보를 겸한 관광인프라화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동반성장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 공공건축이란 어떤 의미이며, 그 개념을 어떻게 반영했나?

공공건축은 일방적인 전시성 사업이나 단순한 물리적인 공공공간이 아니며, 제공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 고급문화향유와 체험을 통해 함께 소통하는 장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가치를 살릴 때에야 비로소 함께 누리는 공공건축의 진정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 사용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국내·외 선진전력홍보관 벤치마킹, 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의 용도와 규모를 비중 있게 계획하였다.

/ 프로젝트 수행에 가장 어려웠던 점과 해결을 위한 대책은?

발전소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인식,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 화력발전소 운영담당인 발전전문회사로서 순수한 일반 공공건축물 건설사업 진행경험 전무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의 극복을 위하여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T/F(TASK FORCE TEAM)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영흥 에너지파크 용역 사업을 발전소 사업에서 분리 발주하여 외부 건축/전시 전문가 그룹의 설계와 지속적인 자문을 통해 에너지파크가 영흥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향후 공공과 대중의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위해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한국남동발전(주)은 삼천포, 영흥, 영동, 여수, 분당 등지에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각각 그 곳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등 사회공헌을 위해 힘쓰고 있다. 조금 더 수준 높은 문화공간제공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타지역 주민들의 참여율을 극대화 시키고,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동반성장을 위해 힘쓸 것이다.

/ 외관의 재료나 공법상 특징적인 것은?

영흥 에너지파크는 발전소 인근의 신규부지확보로 인한 비용의 부담과 개간을 통한 환경파괴를 피하고자 도급자 가설건축물들이 세워져 있었던 기존 발전소 건설부지를 재활용하여 영흥도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배 모양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함께 어우러지는 친환경 에너지파크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된 산업폐기물인 석탄재(ASH)로 만들어진 재활용 벽돌을 강당동 주변 외부광장의 포장재로 활용하여 친환경 에너지파크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한국문화공간 건축학회장상

/
진주휴게소(부산방향)

관광휴게시설
한국도로공사

2012 KOREA
PUBLIC BUILDING
AWARD

2012 KOREA
PUBLIC BUILDING AWARD

한국문화공간 건축학회장상

진주휴게소

관광 휴게시설
한국도로공사

사업배경

남해고속도로 제10호선 진주~마산간 확장공사와 더불어 2010년 신규로 완공된 진주휴게소(부산방향)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진주 톨게이트로 나오는 인터체인지(IC) 램프의 유류 공간을 활용하여 IC일체형으로 건설되었다. 진주휴게소(부산방향)는 사천휴게소와 함안휴게소 사이의 거리가 40Km이상 되어, 고속도로 이용고객의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감 해소 및 편의기능(화장실, 주유소, 쉼터, 식당, 편의점 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고 동시에 경제성을 고려한 간이휴게소로 계획 하였다.

사업개요

사업명	진주(부산방향)휴게소
건물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사업규모	연면적 1,918㎡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목구조
주요시설	휴게소, 사무실, 소장실, 숙직실
시행기관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
담당부서	기술처(도로팀)
부서담당	이일원, 조규성
설계처	(주)가와건축사 사무소
시공사	새미래건설(주)
공사기간	2010. 1. 6. ~ 2010. 7. 31





사업의 특성

금속 또는 석재로 마감하는 기존 휴게소와 달리 주변 자연환경이 임목으로 되어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건축재료를 방부목 재질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였으며, 건물자체를 부드러운 느낌으로 조성하여 머물고 싶은 휴게소로서 차별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에 별도로 부지를 선정하여 휴게소를 설치하는 컨셉과 달리, 휴게소를 IC 램프 구간에 설치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하여 용지비 및 부지조성비 등의 사업비를 최소화 하여 다른 사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사업의 특성

우리나라의 건축허가 규정상 IC 램프의 녹지대는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광장」으로 분류되어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사업은 이런 제약 사항에 대한 많은 검토 및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였으며, 기존 IC를 주행하는 이용자 측면의 안전성을 고려한 시공상 교통처리 계획 등 많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였다. 진주(부산방향)휴게소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교통 선진국의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휴게소 설치 필요성에 대해 건축 허가권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이해·설득 과정을 거쳤다. 또한, 고속도로 설계자문위원(15명) 및 자체 도로교통연구원 소속의 교통학 박사(10명)의 자문과 전문적인 기술지도를 통하여 산재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했다.

발주자의 노력 및 성과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일반인 또한 불편 없이 접근·이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차별화된 휴게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이용고객의 편의성을 위하여 2010년 기존 4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일반적인 고속도로 노선의 측면에 배치되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IC램프의 녹지대 공간을 활용·계획함으로써, 주변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여 친환경 건설을 도모하였다. 더불어 용지매수 비용과 부지조성 비용을 절감하는 등 휴게소 배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 하였다.





심사평

진주휴게소는 발주처의 기획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유희부지에 대한 활용을 통해 지역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고립된 대지에도 불구하고, 휴게소 뒤편으로 이어진 산책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따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하여 고속도로 이용객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편의 시설로서의 휴게소 이용 또한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지역에 파급력이 커 보인다.



INTERVIEW

진주휴게소

/ 2012년 국토부의 공공건축상을 수상하게 된 소감은?

한국도로공사는 대한민국의 도로환경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그동안 고속도로의 특성상 디자인적 측면보다는 주행안정성과 효율적 예산집행에 힘써왔지만 점차 높아지는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 부대시설물에 디자인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이번 공공건축상의 수상은 이러한 우리공사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라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사회와 이용자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도로환경을 위하여 힘쓰겠다.

/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이유로 수상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공공건축상은 기존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발주담당자의 공로를 인정하고자 제정되었다. 진주휴게소는 고속도로 주변 유희부지를 재활용하여 예산절감을 이루었고, 초기 설계당시부터 도로교통연구원과 설계자문위원, 해외 건축디자인까지 참여하여 탄생하게 되었다. 공기업으로써 이러한 노력의 과정과 결과가 다른 공공기관에 앞선 역할모델이 될 수 있기에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 공공건축이란 어떤 의미이며, 그 개념을 어떻게 반영했나?

우리공사에게 고객을 위한 장소는 비단 휴게소만이 아니라 영업소, 줄음쉼터, 고속도로 자체까지 모두를 공공건축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언제 어디서나 고객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공사의 가치가 집약된 건축의 결과가 진주휴게소이다. 진입부에서는 COLOR LANE으로 고객들을 안내하며, 휴게소에서는 친환경 자재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하나하나가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공사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과 가치를 반영된 곳이 이곳 진주휴게소이다.

/ 프로젝트 수행에 가장 어려웠던 점과 해결을 위한 대책은?

도로설계위원과 각 분야 연구원의 기술자문과 설계공모를 통하여 시작된 진주휴게소는 도로시설, 도로포장, 건축, 설비 등 여러분야의 기술이 집적되어 탄생하였다.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휴게소 설계방법에서부터 준공 후까지 공공건축을 위하여 진주시와의 협의 및 보건복지부 평가 등 많은 과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고객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기존 고속도로 이용자라는 고객범위에서 벗어나 진주시민에게까지 다가고자 우리공사 전체가 전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 향후 공공과 대중의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위해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는 진주휴게소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흔히 고속도로 휴게소는 누구나 한번쯤은 이용해보는 곳이지만, 고속도로 고객들만 사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진주휴게소를 통하여 고속도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진주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진주의 역사를 형상화한 진주휴게소의 의미를 부여해준 진주시민들에게 보다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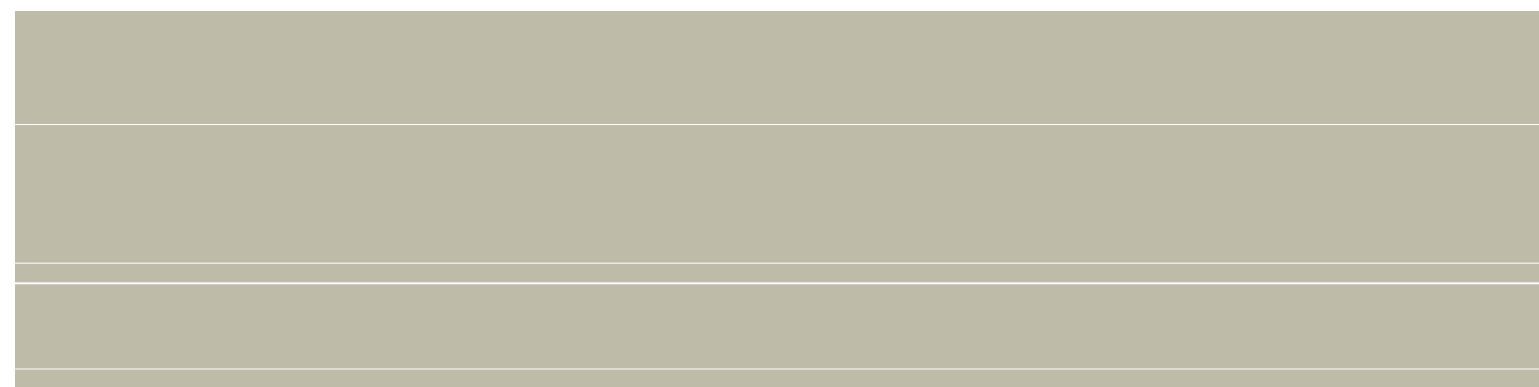
/ 문화공간의 주차장이라는 배경이 실제 주차장 외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도심속에 주차장 건물은 경제적인 이유로 저급자재 및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을 위하여 대부분 OPEN 형태의 단순한 외관을 채택하고 있으나, 문화공간의 주차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창의적이고 예술성 높은 설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외벽을 주차장 내부가 보이지 않으면서 차량의 배기가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알루미늄 유공판을 설치하였으며, 특히 외벽 재료 분할로(도시의 가로망)를 형상화하여 교통과 문화의 소통을 벽면에 담는 등 주차장 외관을 아름답고 테마가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 외관의 재료나 공법상 특징적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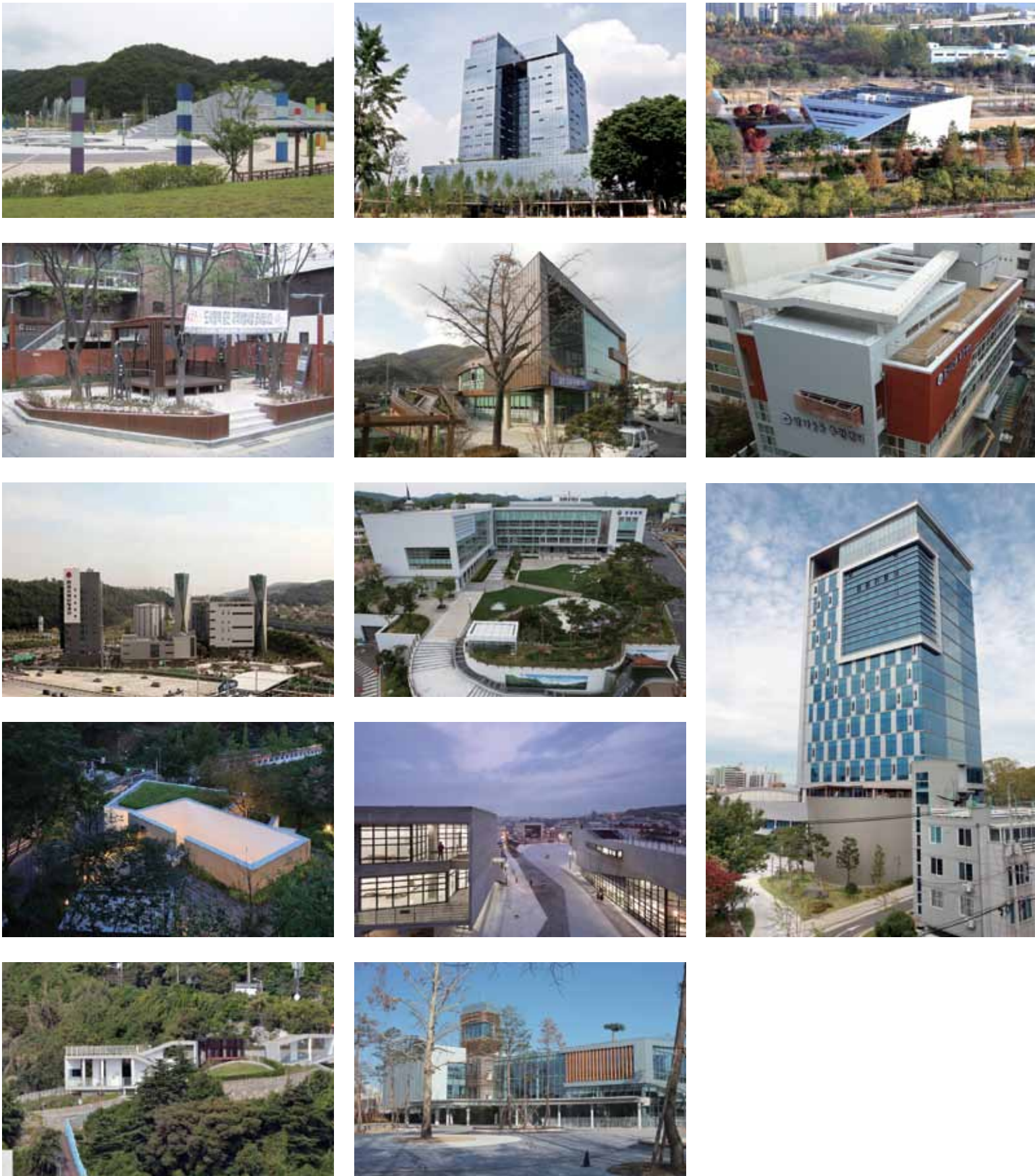
진주휴게소는 자연과 조화되는 모드를 위한 디자인'을 모티브로 하여 설계되었다. 이에 목재를 사용한 건축인테리어로 자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하였으며, 내부 시설물에도 우드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차량에서부터 휴게소 이용까지 턱을 없애으로써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배려하는 디자인'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가 사회에 느끼는 마음의 벽까지 허물고자 노력하였다. (진주휴게소는 휴게소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BARRIER FREE 인증을 획득하였다.)

2012 KOREA
PUBLIC BUILDING A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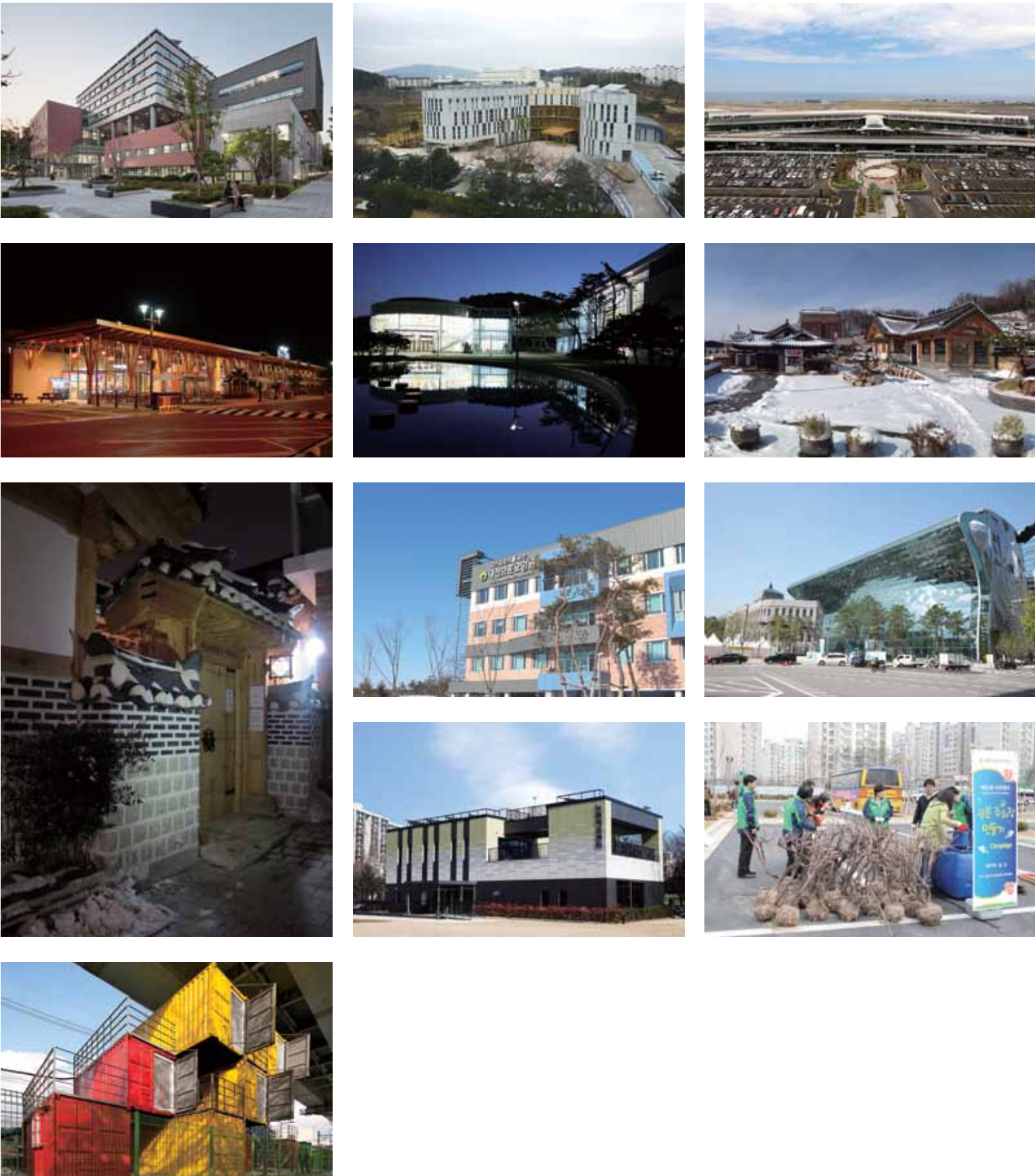


2012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응모작

2012 KOREA
PUBLIC BUILDING
AWARD



- | | | |
|----|----|---|
| 1 | 2 | 3 |
| 4 | 5 | 6 |
| 7 | 8 | 9 |
| 10 | 11 | |
| 12 | 13 | |
1. 화천생태영상센터(화천군청 환경관리과) 2. KNU Global Plaza(경북대학교) 3. 서울에너지드림센터(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4. 개봉3동 아름다운 우리동네 사업(구로구청 건축과) 5. 계룡면사무소(공주시청 시민국회계과) 6. 암사2동주민센터(강동구청 건축과)
7. 판교열병합발전소(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처 토건팀) 8. 보성군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보성군청 재무과 재산관리계)
9.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기념관(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 윤동주문학관(종로구청 공원녹지과관) 11. 봄의마을(서천군청 생태도시과)
12. 해안경관 조망공간(부산광역시청 도시경관담당) 13. 서울 상상나라(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 | | |
|----|----|----|
| 14 | 15 | 16 |
| 17 | 18 | 19 |
| 20 | 21 | 22 |
| 23 | 24 | 25 |
1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관(한국방송통신대학교) 15. 충청북도 교육정보원,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16.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한국공항공사 건설사업팀) 17. 진주(부산방향)휴게소(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 기술처)
18. 영흥에너지파크(한국남동발전 건설처) 19. 주민생활문화 복지지원센터(영주시청 도시디자인과)
20.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건축과) 21. 대전보훈요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시설건설팀)
22. 서울특별시 신청사, 서울특별시청 도시기반시설본부 23. 노원에코센터(서울특별시 노원구청 공원녹지과, 디자인건축과, 녹색환경과)
24. 강일동 공영주차장(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25. 영등포 쪽방촌 임시거주시설(서울특별시 에스에이차공사 도시재생본부)

